

오리협회, 종오리수급위원회 개최



최근 발생한 AI로 인해 종오리를 살처분한 계열업체에 대해 상생차원에서 PS 분양 물량을 우선 배정한다. 오리협회는 지난 2월 5일 대전유성호텔에서 종오리수급위원회를 개최하고 금년도 한국원종오리의 PS분양 물량을 기존 계획대로 생산량의 80% 수준에서 분양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한국원종오리에서 생산 가능한 51만7000수(암컷기준) 중 47만2000수를 지분보유업체에 배정기로 했다. 또 한국원종오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농가들에 대해서는 3만2000수를 배정해 총 48만 4000수를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와 함께 수급위는 AI로 인해 오리고기 소비가 급감함에 따라 소비활성화와 가격안정 대책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업체들은 발생 초기만해도 소비에 거의 영향이 없었지만 AI가 장기화되면서 최대 90%까지 소비가 급감했다며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하면서 과거 AI 발생 시 효과를 거뒀던 AI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비롯해 이동제한 지역 내 정부수매를 건의기로 했다.

▶ 축산경제신문 이해진 기자 [2014. 02. 07]

윤형빈 TKO승, 내조의 여왕 정경미 “안 하던 곰탕, 오리고기 내왔다”



윤형빈이 다카야 츠쿠다에 TKO승을 거둔 가운데 부인 정경미가 준비한 스테미나 음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월 9일 윤형빈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로드FC 14’ 라이트급 다카야 츠쿠다와 격투기 데뷔전에서 1라운드 4분 11초 만에 TKO로 승리했다. 경기에 앞선 인터뷰에서 윤형빈은 “평소 결혼 전부터 ‘종합격투기 무대에서 보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해와 정경미가 반대를 안 했다. 하지만 정경미가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걱정을 많이 했다”며 “정경미가 갑자기 안 하던 곰탕, 오리고기를 내왔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윤형빈 TKO승에 네티즌들은 “윤형빈 TKO승, 사랑의 힘으로 이겼네요”, “윤형빈 TKO승, 정경미 내조의 여왕?”, “윤형빈 TKO승 동영상, 오리고기 덕분에 이겼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 스포츠서울닷컴 [2014. 02. 10]

오리고기의 효능

지금까지 알려진 오리고기의 효능은 첫째, 알칼리성 식품으로 인체의 산성화를 방지해줌으로써 혈

액내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각종 성인병은 물론 중풍, 고혈압 등의 예방에 효과가 뛰어난 식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둘째, 불포화 지방산이 돼지고기나 쇠고기에 비해 20%이상 많은 반면, 포화지방산 함량이 낮아 성인병 예방에 탁월하다는 점이다. 불포화지방산은 세포막을 부드럽게 해서 영양소 전달이 원활하게 함으로 건강한 세포로 만들어주고 혈액을 맑게 해 영양과 산소를 충분히 공급케 한다. 셋째, 오리고기의 레시틴 성분은 인체독성 해독에 유익하게 작용해 체내에 존재하는 노폐물 성분이 신장을 통해 배출하게 하며 신장기능을 향상시켜 준다. 특히 오리는 해독작용과 혈액을 맑게 해 주어 중풍, 고혈압, 동맥경화, 빈혈예방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현대축산뉴스 칼럼 [2014. 02. 10]

서울역점에서 ‘닭·오리·계란 소비 활성화’를 위한 특별행사’를 열고 시민들에게 시식행사를 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닭·오리고기 소비가 60~70%가량 급감하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들이 농가 돕기 차원에서 유통마진을 받지 않고 이달 말까지 소비자에게 판매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한대욱 기자 [2014. 02. 11]

롯데마트 ‘닭·오리·계란 소비 활성화’를 위한 특별행사’



롯데마트가 2월 11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고사위기 오리산업 정부수매로 숨통을” 장기불황에 AI 겹쳐 최악 위기… 주문량 최대 90% ↓

고병원성 AI가 장기화되면서 오리업계의 시름도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장기불황에 AI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리업계에 따르면 AI발생 이후 주문량이 최대 90%까지 감소하면서 나머지 물량은 고스란히 재고로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불황타개를 위해 공급량을 감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올해도 종오리 분양수수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AI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직면했다는 지적이다. 오리협회가 AI발생 이후 계열업체를 비롯해 오리전문 식당을 대상으로 오리소비동향을 조사한 결과 계열업체의 경우 최대 90%까지 주문량이 감소했으며 오리전문식당 역시 소비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오리업계는 이동제한 지역내 오리에 대해 정부수매 등을 통해 업체들의 숨통을 틔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오리계열업체 관계자는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오리계열업체들의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AI에 따라 수요 감소로 재고량 급증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급도 계열농가들의 사육수수료 지급이 밀려있는 상황에서 AI가 장기화될 경우 계열업체는 물론 농가들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과거 4차례 AI가 발생했으며 이중 2010~2011년 발생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3번의 경우 수매를 실시했다. AI가 최초 발생했던 2003년의 경우 정부수매자금으로 271억원이 투입됐으며 2006년에는 26억원 2008년에는 922억원이 소요됐다. 2010년의 경우 수매를 실시하지 않았다.

▶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4. 0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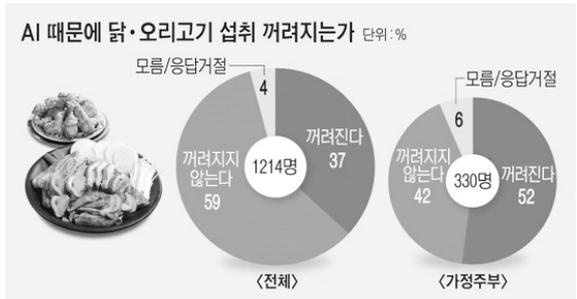
큰 영향을 미치는 가정주부와 여성들이 AI 사태 이후 가금류 섭취를 더 꺼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의 92%가 ‘국내에서 AI 인체 감염 사례가 없으며, 익힌 고기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구매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와 생산자단체 등의 소비홍보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갤럽이 2월 3~6일 전국 성인 1214명을 대상으로 AI 사태 이후 닭·오리고기 섭취와 인체감염 위험 우려 등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AI 때문에 닭이나 오리고기 섭취가 꺼려진다’는 응답자는 37%에 그쳤다. 반면 59%는 ‘꺼려지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4%는 의견을 유보했다. 무엇보다 성별 차이가 컸다. 닭·오리고기 먹기가 꺼려진다는 사람은 남성의 경우 25%에 그친 반면 여성의 49%, 특히 가정주부에서는 52%나 됐다. 가족 건강과 먹거리를 책임지고 외식 메뉴 선택에도 영향력이 큰 여성과 가정주부의 절반가량이 닭·오리고기 섭취를 기피하는 셈이다.

AI 인체 감염 위험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매우 많다’ 5%, ‘어느 정도 있다’ 35%, ‘별로 없다’ 39%, ‘전혀 없다’가 12%였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전반적으로 인체 감염 위험이 없다(51%)고 여기는 응답자가 있다(40%)고 보는 사람보다 많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감염 위험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한국갤럽은 분석했다.

인체 감염 위험 여부 역시 성별 인식 차이가 컸다. 남성(33%)에 비해 여성(46%)과 가정주부(47%)에서 위험 가능성을 높게 봤다. 특히 닭·오리고기 섭취를 기피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59%가 감염 위

**닭·오리고기 소비 영향력 큰 가정주부
“AI 때문에 섭취 꺼려진다” 52% 달해**



정부와 대형마트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소비감소로 고통 받는 가금류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소비촉진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정에서 닭·오리고기 등의 소비에 가장

험이 있다고 답했고, 기피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28%도 감염 위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방역 당국이 AI 사태 이후 적극 홍보해온 ‘AI의 인체 감염 사례가 없으며 익힌 고기는 안전하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2%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8%만 ‘몰랐다’고 응답했다.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 결과 사실상 대다수의 국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I 인체 감염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홍보대책이 AI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그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유사 상황 발생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학계 관계자는 “닭·오리고기 소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성, 특히 가정주부 층에서 AI 불신이 심각하다는 것은 정부당국의 홍보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소비지에서 할인 및 판촉행사 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AI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마련이 더 시급해 보인다”고 밝혔다.

▶ 농민신문 성흥기 기자 2014. 02. 12



련,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AI에 감염된 오리나 닭이라든) 섭씨 75도로 5분간 열처리하면 바이러스가 모두 죽으므로 끓여 먹으면 안전하다’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

비록 요즘 수난을 겪고 있지만 계란이 건강식이라는 사실은 이제 정설이다. 계란 단백질은 인체에 필요한 필수아미노산 조성과 유사해 세계보건기구(WTO)는 계란 단백질을 완전단백질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계란 내용물 중에서도 노른자(난황)는 그 성분과 관련, 오랜 기간 식품영양학계의 주요 연구대상이었다. 계란을 비롯해 오리알과 메추리알 난황의 주요 성분과 효능을 알아보았다.

우선 계란부터 보자. 계란 노른자에서 가장 주목받아온 영양 성분은 콜린과 레시틴이다. 계란의 레시틴은 뇌세포막의 구성성분이며, 콜린은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구성성분이다. 따라서 기억력 향상 등 뇌기능 활성화를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성분들이다. 치매 예방에도 좋은 성분으로 권해진다. 계란 노른자에 함유된 콜레스테롤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다. 오히려 노른자의 레시틴은 혈전, 심장, 동맥경화증, 고혈압 및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콜레스테롤의 인체 흡수율을 떨어뜨려 혈중 콜레스테롤 상승을 막아준다. 또 레시틴은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하는 독특한 성질, 즉 유화력을 갖고 있어서 인체 안의 지방

닭 · 오리 · 메추리 알 치매 · 콜레스테롤 막는다

요즘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 때문인지 닭이나 오리는 물론 계란까지 판매량이 줄었다고 한다. 조사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오리알과 메추리알의 판매 상황도 비슷할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

을 작은 입자로 분해하는 등 지방 대사를 촉진, 지방간을 예방한다.

이와 함께 노른자의 비타민 B1은 신경세포 활성화에 필요한 성분이다. 또 엽산은 DNA와 신경전달물질들의 합성에 관여해 치매 예방은 물론 임신부의 기형아 출산 방지도 중요한 영양소로 꼽힌다. 또 비타민 B12는 적혈구를 만들고 신경세포를 튼튼히 해준다. 따라서 비타민 B12 역시 악성빈혈 예방과 뇌의 노화 등으로 인한 치매를 방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오리알과 메추리알은 어떨까. 성분 구성에 사실 큰 차이는 없다. 노른자 역시 같은 난황인 만큼 모두 콜린과 레시틴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그러나 비타민이나 미네랄 조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함량은 조금씩 다르다.

오리알의 경우 칼슘이나 철, 마그네슘, 인, 칼륨 등 무기질 성분이 계란보다 풍부하다. 또 비타민 A나 비타민 B군 등의 함량도 계란보다 많다. 한방에서 오리알을 기관지염으로 인한 가래를 삭히는 데 치료식의 하나로 권했던 것도 이 같은 영양성분 때문이다. 오리알에 많이 들어 있는 비타민 A는 호흡기와 위장관 점막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해 유해한 미생물이 체내로 침입하는 것을 막아준다. 이는 비타민 A가 백혈구의 생성을 돕기 때문이다. 비타민 B12 함량은 5.40ug으로 계란(0.89ug)의 무려 6배 정도에 이른다.

그런데 오리알보다 비타민 A 성분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이 메추리알이다. 세 종류의 알식품(계란, 오리알, 메추리알)의 비타민 함량을 비교한 결과, 메추리알의 경우 비타민 A, 비타민 B2, 엽산, 비타민 D의 함량이 계란과 오리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추리알의 비타민 B12 함량은 비록 오리알보다는 적어도 100g당 4.7ug으로 계

란의 5배에 이른다. 특정 성분만 보자면 오리알과 메추리알이 계란보다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는 셈이다.

한편 오리알의 경우 한 대학병원에 의해 계란 알레르기 환자들에게 대체식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계란 알레르기로 확인된 환아들의 혈청으로 면역반응을 측정할 결과 갈색계란, 백색계란 및 메추리알에서는 강한 면역반응을 보였으나 거위알, 오리알 및 청둥오리알에서는 약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 문화일보 이경택 기자 [2014. 02. 12]

<도움말=강근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연구사>

[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이창호 한국오리협회장
“AI 조기 종식 위해
전폭적 지원 대책 절실”

“저도 농장을 하고 있어서 그동안 정성들여 키워온 가축들이 한순간에 눈앞에서 사라지는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막고 싶은 심정이죠. 축산농가들도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이창호 한국오리협회장은 신년 릴레이 인터뷰에서 최근 발생한 AI 파장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빠른 AI 종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오리 농가들은 소비가 많이 줄어 지금 출하해도 판매가 어려운 실정까지 이른데다가 AI로 인해 오리가 대거 살처분되면

서 이증고를 겪고 있다”면서 “다시 입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그동안 소득이 없어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 지속적으로 외식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현장 실정은.

▶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노력에도 소비 활성화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협회에서 파악해 본 결과 업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대 90%까지 매출이 감소한 곳도 있고 평균적으로 5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걱정이 크다.

- 소비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오리 협회를 비롯한 단체들이 오리 소비 촉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성과는.

▶ 오리 산업의 어려움을 통감하고 단체들뿐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농축산부를 비롯해 국회 농해수위, 지자체, 기초단체 등에서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오리고기 시식회를 산발적으로 진행하는 등 오리고기의 안전성을 부각시키는 행사를 많이 열고 있다.

또 100여명의 가정의학회 의사들도 가금류에 대한 안전성 홍보에 앞장서 큰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하게 소비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AI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소비자들이 다시 찾아 줄 것으로 믿고 있다.

- 이번 AI로 인해 최초로 스탠드 스틸이 발동되고 차단방역에 힘쓰고 있는데.

▶ 정부나 관련단체, 농가까지 나서 모두 차단방역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중앙정부, 각 시군별로 밤샘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두가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족한 부분은 존재한다. 다소 아쉬운 점은 좀 더 광범위하고 세밀한 방역작업을 위해서는 인력이 총원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또 도·시·군 별로 방역 시스템에 차이가 있는데 일관성 있는 작업이 진행되길 바란다.

-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소비자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 AI가 감염된 가금류는 원칙적으로 시중에 유통될 수 없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500m부터 3km까지 매몰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가금류 이동시 임상검사를 통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어 2중, 3중으로 유통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오리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아 우리몸에 좋은 육류로 사랑받아 왔다. 이번 AI의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축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2014. 02. 14]

이창호 한국오리협회장,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

[발언전문]

예년 같으면 올림픽 기간은 닭과 오리 소비의 성수기여서 농가들이 밀려드는 출하주문을 맞추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소비량이 크게 줄어 농가들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발생한 AI 때문이라고 합니다. 닭과 오리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AI보다 더 무서운 게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불안감으로 최근 닭과 오리 소비가 최대 70%까지 줄어 농가의 근심이 커지

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창호 한국오리협회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 이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으로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입으셨는데요,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은 어떤가요?

▶ 지난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부터 AI가 시작되었고, 총 24건이 신고되어서 현재 5건의 임상실험결과 오리 130만수 정도, 닭 240여만 수가 매몰되었고, 총 370여만 수의 닭과 오리가 매몰됐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 정도면 전체 사육하고 있는 수의 몇 %에 해당되니까?

▶ 오리의 경우는 한 20%정도입니다.

■ 몇 년에 한번 꼴로 AI와 같은 가금류 전염병으로 우리 축산 농가가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 현재 정부에서 발생확률이 높은 동절기를 중심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간의 상황을 봤을 때 상시체제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요. 가금류를 정기적으로 감찰하는 시스템을 실시하고, 보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아울러 농가의 피해보상 개선과 농가들에 대한 예방교육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일각에서는 가금류의 밀집사육을 문제 삼기도 하는데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친환경적이고 동물복지를 신경 쓰는 방향으로

미래 축산방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축산도 많은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육이 과거의 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밀집사육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죠. 생산에서 가공까지 HACCP이 관리하고 있고, 다만 변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특성에 맞는 방식을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축사거리 제한과 제도개선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 아직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 아직 보완의 필요성이 많죠.

■ 축사의 거리 같은 건 규정돼 있죠?

▶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축사시설이 아닌 가축시설로 바꿔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 축사시설은 집보다도 좋게 지어야 합니다. 예산이나 금전적으로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사육시설을 얼마든지 재보수를 통해 친환경적인 사육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축사시설이 아니더라도 친환경적인 시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규제하는 것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 정부가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매몰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매몰처분이 꼭 필요한 것인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직접 오리를 사육하시는 분으로써 매몰처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그동안 정성들여 키워온 가축들이 한 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는 심정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막고 싶은 심정인데, 축산농가도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일은 아닐 것이고, 그러나 AI가 발생하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확산을 막는 것입니다. 매몰처분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물복지를 좀 더 생각해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고는 있지만 보완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많은 부분이 좀 더 동물복지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닭과 오리의 소비가 줄자 정부가 나서서 소비 촉진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서울 명동에서 행사를 가지신다고 들었습니다.

▶ 그렇습니다. AI로 고통 받고 있는 농가들을 위한 캠페인인데요, 금일 11시 4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됩니다. 정부 42개 부처 대변인이 여러 단체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시식회가 진행되고, 현장에는 닭 먹는 인증사진을 가져온 선착순분들에게 치킨교환권도 많이 증정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의료나 보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AI의 경우 고열로 요리를 하면 건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여러 차례 보도가 됐는데요, 왜 이렇게 불안심리가 가시지를 않을까요?

▶ 아마 인체에 감염될 가능성과 감염된 오리나 닭

의 유통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앞의 두 가지 이유로 소비가 확실히 감소하였습니다만 일부 언론들의 확대해석보도가 있었고요,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 오늘 거리 캠페인 뿐 아니라 대형마트들도 '닭고기·오리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갖고 있지요?

▶ 그렇습니다. 현재 대형마트들도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AI로 고통 받고 있는 농가들을 돕고 닭·오리를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는 기회로 많이 이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AI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마음을 모아야 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우선 정부가 농가와 합심해서 하루빨리 AI가 종식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철새가 이번 달에는 북방으로 날아가는데 4월쯤에는 남방 철새가 올라오기 때문에 예방이 필요하고요, 감염된 오리나 닭이 절대 유통될 가능성이 없으니 안심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 PBC뉴스 [2014. 02. 14]

AI 후폭풍, F1오리 대비해야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다. 수많은 오리나 닭 등 가금류가 살처분된 걸로 모자라 소비가 대폭 감소해 사육농가, 계열화사업

자는 물론 유통업체까지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할인행사 등 적극적인 소비촉진행사가 전개되고 있지만 가금류 소비가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속한 AI 종식과 다각도의 대국민 소비촉진 홍보활동이 필요한 이유다.

이번 AI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오리업계의 경우 13만~14만마리에 달하는 종오리를 살처분했다. 전체 종오리 사육마릿수의 10%이상이 사라지면서 앞으로 새끼오리, 생체 등의 공급물량 부족이 염려되고 있다. AI가 지속될 경우 여름철 성수기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새끼오리 입식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가금관련단체 차원의 소비촉진행사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업계의 발빠른 대응으로 조속한 수급 정상화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F1오리의 유통 근절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2011년 AI로 종오리가 50만마리 가량 감소했지만 AI종식이후 육용오리 물량이 부족해지자 F1오리가 유통돼 시장을 교란시키고, 산지가격을 폭락시킨 사례가 있는 만큼 동일한 절차를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식품안전성과 위생이 담보되지 않는 F1오리는 오리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낳을 수 있어 오리산업의 이미지마저 실추시킬 우려도 있다.

이미 오리업계는 AI에 대한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이동제한, 소비위축 등에 따른 매출 감소처럼 눈에 보이는 피해보다 소비자 불안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더 컸다.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로써의 신뢰를 재구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 F1오리가 유통된다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오리고기를 기대하는 소비자에게 신뢰는 커녕 큰 실망만을 안길 것이다.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농가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또한 F1오리는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F1오리를 적발해내기 위해서는 일일이 농장을 찾아가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 인력과 시간의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닐 수 없다. F1오리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사육농가 스스로의 근절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육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웃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돌아오길 손꼽아본다.

▶ 농수축산신문 이한태 기자 [2014. 02. 17]

AI 누른 올림픽 열기... 닭 · 오리 야식 특수

올림픽 열기가 조류인플루엔자(AI)를 이겼다. 롯데마트는 동계올림픽 시작 직후인 2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생닭(10.7%)과 오리고기(30.8%), 치킨(21.7%) 등 닭과 오리 매출이 전주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2월 18일 밝혔다. AI는 1월 17일 전북 고창군 무림리 소재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후 전국으로 확산했다. 가금류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해, 출하를 앞둔 양계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동계 올림픽 직전인 2월 2일부터 8일까지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생닭(-24.4%), 오리고기(-13.1%), 치킨(-18.9%) 모두 줄었다. 롯데마트는 동계올림픽이 시작한 2월

8일 이후부터는 야식 수요가 늘면서, 매출이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AI 여파 이후 한 달여 만에 매출이 회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03년 이후 AI가 발생할 때마다 가금류 매출이 기존 수준을 회복하는 데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렸다. 남창희 롯데마트 상품본부장은 “동계 올림픽 특수에 관련 상품 매출이 늘어나며 AI로 인해 침체된 양계농가에 희망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올림픽 폐막 이후에도 AI로 인한 여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캠페인 전개를 통해 양계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2014. 02. 18]

AI 3km이내 첫 ‘선택적 살처분’

충남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가 주변 500m에서 3km 이내(위험지대) 농가에 대해 ‘선택적 살처분’을 실시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충남도는 2월 16일 “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의 500m 이내(오염지대) 농가 가금류만 살처분하고 위험지대에 위치한 농가의 가금류에 대해서는 무차별 살처분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AI 확진시에만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AI 확진판정을 받은 천안시 풍세면 오리농장의 오리 2만여마리와 청양군 산란계 농장의 닭 3만여마리를 2월 15일 살처분하고, 2월 16일 반경 500m 오염지역에 위치한 1개 오리농장에 대해서만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하지만 발

생농가와 600~7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3개 농장의 가금류 15만여마리에 대해선 정밀검사를 실시한 뒤 AI가 확진될 경우에만 살처분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와 동물복지단체 등은 마구잡이 식 동물 살처분 방역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위험지역에서 예외를 인정하면 AI 방역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충남도는 선택적 살처분 방침이 농식품부의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는 발생농장 반경 3km 내외의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의 살처분을 확대해 실시할 것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결국 충남도는 그동안 검역본부의 살처분 확대요청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던 것에서 벗어나 도지사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 살처분 범위 확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살처분 명령권은 시장·군수가 갖고 있는 만큼 이들의 의지에 따라 살처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 결정에 해당 시·군이 동조하면 AI 선택적 살처분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농민신문 김철웅 기자 [2014. 02. 19]

오리고기 시식하는 박대통령



2월 24일 박근혜대통령이 시흥비즈니스 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민생 실물경제 분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닭·오리고기 시식을 하고 있다.

▶ 경향신문 [2014. 02. 24]

종오리 30% 살처분에 새끼오리 '품귀'

고병원성AI가 장기화되면서 오리업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1월 17일 최초 발생 이후 오리 살처분 수수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면서 200만수 가량이 살처분 조치가 취해졌다. 특히 심각한 것은 종오리 살처분 수수 증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새끼오리 부족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살처분된 오리 200만수 중 종오리가 20만수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종오리 20만수는 국

내 종오리 사육수수의 1/3에 가까운 마릿수다. 이로 인해 당장 새끼오리 생산량이 줄어들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최근 오리협회가 조사한 새끼오리 거래가격이 800원대에서 50%가 상승한 1천200원에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 물량을 구하지 못해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것이 오리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오리업계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오리고기 소비가 급감해 생산량이 줄어들어도 큰 무리가 없지만 AI사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일시적으로 오리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살처분이 완료되고 재입식이 물리는 시점에서 새끼오리 품귀현상이 가중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4. 02. 25]

'국내산 닭·오리 안전합니다'



2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AI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닭고기·오리고기 소비촉진 행사에서 참석 의원들이 시식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14. 02. 27]

허가기준 철저 정비... 청정국 명예 되찾아야



이상만 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FMD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2011년 3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고, 2013년 2월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올해 1월 16일

고병원성 AI가 31개월만에 재발했다. 도입 첫째, 허가제 대상은 모든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대규모 가축사육업(사육시설면적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 초과)으로써, 올해부터는 그 대상을 전업규모 가축사육업(소 600㎡, 돼지 1,000㎡, 닭 1,400㎡, 오리 1,300㎡ 초과)으로 확대했고, 2016년부터는 소규모(50㎡초과)까지 연차적으로 확대된다.

축산업 허가제 시행의 가장 큰 목적은 가축방역을 위한 소독·방역시설을 설치하고, 과밀사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육밀도를 준수하며, 농장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있다.

축산업 허가기준은 크게 시설·장비기준,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 위치기준이 있다. 시설·장비는 사육시설(환기), 소독시설(차량·출입자 소독시설, 차량소독실시·출입자방문 기록부, 신발 소독조), 방역시설(사람·차량·동물의 출입을 통제하는 울타리·담장, 출입금지 안내판) 등이다.

적정 사육밀도 기준은 가금류를 예로 들면, 축사 1

동이 1,200㎡(12m×100m)일 경우, 산란계(평사)는 약 1만마리, 육계(개방계사)는 약 2만8천마리, 오리(산란용·육용)는 약 3천600마리·4천800마리 이내로 사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허가대상의 경우 2년마다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과목은 축산법규, 가축질병 관리,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환경 등이다.

기존에 등록된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되 1년 이내에 허가기준(시설 및 장비 등)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2월 23일부로 허가대상이 된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및 대규모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농가는 1년의 유예기간이 끝났으므로 빨리 허가기준을 갖춰야 한다. 지자체는 조만간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AI가 발생한 농가는 모두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가기준을 위반하고 영업을 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아울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영업을 정지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허가기준을 갖추지 않은 농가는 하루 빨리 조건에 부합하는 시설 및 자격을 갖추고,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당장은 축산업 허가제가 불필요한 규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AI 발생을 종식시킨 이후, 하루빨리 축산 청정국가로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허가제의 철저한 이행을 통한 방역체계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 오리소비촉진 홍보관련 언론보도 현황 ◎

2014. 2. 1 ~ 2. 24 기준

연번	보도일	언론사	제 목
1	2월 03일	강원신문	강원도,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홍보
2	2월 04일	뉴스웨이	거창군, 오리·닭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시식회 가져
3	2월 04일	뉴스1	경기 광주시, 오리고기 등 소비 촉진 행사
4	2월 04일	충청투데이	아산시 닭·오리 소비촉진 앞장
5	2월 05일	아시아경제	영광군, '닭·오리 안심하고 먹기 시식회' 열어
6	2월 05일	경북매일	경북농협 "닭·오리 맘껏 드세요"
7	2월 06일	충청매일	예산군,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앞장
8	2월 06일	뉴스웨이	하동군,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앞장
9	2월 06일	충청투데이	청주시 봉명1동 직능단체 협의회, 닭·오리 먹기 캠페인
10	2월 06일	NSP통신	해남군, 닭·오리고기 시식회 개최
11	2월 06일	경북매일	칠곡군 "닭·오리고기 익혀 먹으면 안전" 공무원·군의원 소비촉진 홍보
12	2월 06일	아시아뉴스통신	양주시, 닭·오리고기 소비 촉진 시식회 가져
13	2월 07일	중부일보	인천시 "닭고기·오리고기 안심하고 드세요"
14	2월 07일	뉴스1	이천시 닭·오리 소비촉진 나서
15	2월 08일	국제뉴스	광양시, 닭·오리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행사 가져
16	2월 08일	국제뉴스	함평군 대동면 기관·사회단체장 오리고기 소비 앞장
17	2월 08일	강원도민일보	횡성군, "닭·오리 안심하고 드세요" 소비촉진 홍보
18	2월 10일	뉴스1	진주시, 닭·오리고기 구매 및 소비촉진 시식회
19	2월 10일	디트뉴스24	대전농협,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행사 개최
20	2월 10일	농민신문	광주농협, "닭·오리고기 안전해요" 소비 캠페인
21	2월 10일	경남신문	사천시의회, 닭·오리 소비촉진 행사
22	2월 10일	뉴시스	광주북구청, 오리고기 소비촉진 시식회
23	2월 11일	충북일보	유영훈 진천군수 "오리 안심하고 드세요"
24	2월 11일	아주경제	보령시, 닭·오리 소비 앞장서
25	2월 11일	매일경제	경기도농업기술원 "닭·오리고기·계란 안전합니다" 캠페인
26	2월 11일	충청매일	aT충북지사, 닭·오리 소비 촉진운동
27	2월 11일	아시아투데이	나주시, 오리고기 시식회 가져
28	2월 11일	경인일보	농협오산지부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홍보

연번	보도일	언론사	제 목
29	2월 12일	NSP통신	목포시, 닭·오리 소비 촉진 시식행사 가져
30	2월 12일	뉴스1	전남농협, 오리고기 시식회
31	2월 12일	연합뉴스	전북도, 닭·오리고기 소비에 주력
32	2월 12일	아시아투데이	현대삼호중공업, 사내식당서 닭·오리 7만3000마리 집중소비
33	2월 12일	뉴스천지	강원도교육청,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행사
34	2월 12일	국제뉴스	음성군 직원들, 닭·오리 소비 촉진 앞장
35	2월 12일	국제뉴스	임실군,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앞장'
36	2월 12일	헤드라인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오리고기 소비촉진 시식행사
37	2월 12일	뉴스1	광주 북구의회 "닭·오리 안심하고 드세요" 오리탕 시식
38	2월 12일	농민신문	경기농협·농협 오산시지부, 오리·닭고기 소비촉진 동참
39	2월 13일	경남신문	창원시농업기술센터, 오리고기 시식행사
40	2월 13일	충청매일	영동군, 매주 목요일은 닭·오리 먹는 날
41	2월 13일	NSP통신	장성군,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운동 전개
42	2월 13일	연합뉴스	농협,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캠페인 나서
43	2월 14일	강원도민일보	홍천 기관단체장 닭·오리고기 시식
44	2월 14일	강원도민일보	춘천시, 닭갈비·오리 소비촉진 캠페인
45	2월 14일	강원일보	NH농협은행 화천군지부,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46	2월 14일	NSP통신	순천시,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운동 전개
47	2월 14일	아시아뉴스통신	문경시, 닭,오리고기 시식회 개최
48	2월 14일	전업농신문	강원농기원·생활개선회, 닭·오리 소비촉진 앞장
49	2월 16일	제주일보	제주농협, 수요일마다 '닭·오리고기 먹는 날' 운영
50	2월 16일	중부매일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주민센터, 오리·닭 소비 촉진 운동
51	2월 17일	한강타임즈	식약처 직원들, 닭고기·오리고기 소비촉진에 적극 동참
52	2월 17일	헤드라인제주	제주서부경찰서, "닭·오리 안전해요" 시식행사
53	2월 17일	경남신문	창원시축산농협 '농가돕기' 오리·달걀 할인판매
54	2월 17일	농민신문	충북도, "닭·오리 안심하고 드세요" 대대적 소비촉진 운동
55	2월 17일	인천일보	광명시,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캠페인
56	2월 17일	국제뉴스	충주시, 공무원 오리·닭고기 소비 촉진앞장
57	2월 17일	충청투데이	단양군, "닭·오리고기 안심하고 드세요" 소비촉진 앞장
58	2월 17일	충청투데이	청주 흥덕구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술선수범

연번	보도일	언론사	제 목
59	2월 17일	농민신문	정부 42개 부·처·청 대변인들 “오리·닭고기 안전해요”
60	2월 17일	충북일보	양계협회충주시지부, 충주시청 구내식당서 오리·닭소비 촉진
61	2월 17일	기호일보	농협안성교육원, 축산농가 살리기조류 소비 캠페인
62	2월 18일	아시아뉴스통신	익산시, 토종닭·오리고기 판매행사
63	2월 18일	CNB뉴스	부산시-부산농협, 시 피해농가 돕기 시식행사
64	2월 18일	대전투데이	충남교육청, 닭·오리 소비 촉진 행사 가져
65	2월 18일	국제뉴스	전남도 직원들, 오리·닭고기 소비 앞장
66	2월 18일	뉴시스	가평경찰서, 닭·오리 소비 촉진 위한 '꼬꼬데이' 행사
67	2월 18일	경남신문	진주축협, 닭·오리 사육농가 돕기 소비촉진행사
68	2월 18일	현대축산뉴스	토종닭협·계육협·양계협·오리협회, 닭·오리농가 돕기 소비촉진 캠페인 개최
69	2월 18일	경남일보	사천시,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행사 개최
70	2월 18일	광주일보	광주시, “오리고기 걱정말고 먹읍시다” 오리고기 시식회
71	2월 18일	광주드림	농어촌공사 전남,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시식회’
72	2월 18일	경남도민일보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닭·오리 소비 촉진 행사
73	2월 19일	충청일보	충북농협·농협충북유통, 국내산 닭·오리 소비촉진 행사
74	2월 19일	전북도민일보	장수군 장계면 기관장상조회 닭·오리 소비 촉진 앞장
75	2월 19일	중부매일	청주시, 오리백숙 시식행사
76	2월 19일	아시아경제	영산강사업단, 소비촉진 위해 닭·오리 시식행사
77	2월 19일	농민신문	광주축협, 닭·오리고기 소비촉진운동으로 축산농가 도와
78	2월 19일	한라일보	제주시, 제주산 닭·오리 안심하고 드세요
79	2월 19일	경남도민일보	농어촌공사 경남, 닭·오리 소비 촉진 행사
80	2월 19일	광주일보	고향주부모임전남도지회, ‘닭·오리고기 더 먹기’ 시식회
81	2월 19일	인천일보	포천시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홍보
82	2월 19일	연합뉴스	성동구청 직원, 닭·오리 소비촉진 나서
83	2월 19일	아시아뉴스통신	청녕군,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84	2월 20일	충청일보	보은군, “닭·오리 안심하고 드세요” 소비촉진 홍보
85	2월 20일	불교공뉴스	대전시, “닭·오리 안심하고 드세요” 소비촉진 홍보
86	2월 20일	국제뉴스	안성시, ‘꼬꼬오리’ 공무원들 판매 촉진에 나서
87	2월 20일	불교공뉴스	충북농업기술원,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동참
88	2월 20일	헤드라인제주	농협서귀포시지부, 제주유나이티드FC와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캠페인

연번	보도일	언론사	제 목
89	2월 20일	아시아뉴스통신	창원시 성산구, '닭·오리고기 먹는 날' 지정
90	2월 20일	충북일보	괴산경찰서, 오리·닭고기 소비촉진행사 가져
91	2월 20일	대전일보	충남도청 공무원, 삼계탕·훈제오리 시식행사
92	2월 20일	국제뉴스	충북음성경찰서, 닭·오리 소비 촉진 동참
93	2월 20일	울산매일	울산농협, 매주 수요일 '닭·오리고기 먹는 날' 지정
94	2월 20일	강원도민일보	농협 강릉시지부 닭·오리 시식회
95	2월 20일	울산매일	울산남구, 닭·오리고기 소비 촉진 앞장
96	2월 21일	전북도민일보	김제 농협사료 전북지사, 닭고기·오리고기 먹는날 지정
97	2월 21일	경남도민일보	고성군 닭·오리고기 소비촉진운동 전개
98	2월 21일	국제뉴스	천안시 부성2동 기관단체장, 오리 시식행사
99	2월 21일	충청투데이	충북·청주시의사회 "닭·오리 안심하고 드세요" 소비 캠페인 동참
100	2월 21일	인천일보	성남시,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 공동으로 닭·오리 소비촉진
101	2월 22일	농민신문	인천농협, 닭·오리 소비 운동
102	2월 22일	아시아뉴스통신	봉화군 춘양면, 닭·오리 소비촉진 운동 나서
103	2월 22일	충북일보	괴산군보건소, 오리·닭고기 소비촉진행사
104	2월 23일	충청일보	홍성군농업기술센터, 닭·오리·계란 소비 촉진 앞장
105	2월 23일	한국경제	전경련 "회원사 닭·오리고기 급식 확대"
106	2월 23일	경상일보	농협울산농수산물유통센터, AI 피해 농가돕기 닭·오리 특판행사
107	2월 23일	새전북신문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 닭 - 오리고기 요리시식 캠페인
108	2월 23일	경기신문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우리 닭·오리고기 안심하시고 드세요" 시식 할인행사 개최
109	2월 23일	충청일보	"닭·오리 농가 살리기 4개 기관 뭉쳤다" 농협충북지역본부, 농협충북유통, 농협목우촌, 다모아영농조합
110	2월 23일	새전북신문	부안군·부안군외식업지부,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111	2월 23일	뉴스웨이	경남농협, 사업추진 결의대회 및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행사
112	2월 23일	아시아투데이	성남수정경찰서, 닭·오리 소비 촉진 위해 '삼계탕DAY'
113	2월 23일	충청일보	옥천경찰서, AI 축산농가 지원 소비 촉진행사 실시
114	2월 24일	수원일보	수원시 - 농협경기본부, 닭·오리 시식행사 가져
115	2월 24일	경향신문	오리고기 시식하는 박대통령

* 언론사별 중복된 기사는 1건만 집계함.

* 오리소비 촉진 캠페인에 동참해주신 정부 및 유관기관, 전국 지자체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AI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현황 ◎

2014. 1. 30 ~ 2. 24 기준

연번	배포일	제 목
52	1월 30일	경남 밀양 토종닭 AI 의심축 H5N8 판명 -고병원성 여부는 검사중-
53	1월 30일	경남 밀양 토종닭 AI 의심축 H5N8 판명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 추진
54	1월 30일	전남 영암 종오리 및 경기 화성 종계 농장 의심환축 AI(H5N8) 고병원성으로 확진
55	1월 30일	경남 밀양 토종닭 농장 의심환축 AI(H5N8) 고병원성으로 확진
56	2월 1일	충북 진천 육용오리 농가에서 AI 의심축 신고
57	2월 1일	부산 강서구 육계 농가에서 AI 의심축 신고
58	2월 1일	경기 평택 육계 농가 및 전북 부안 종계 농가 의심축 AI 음성 판명
59	2월 2일	충북 음성 종오리농장에서 AI 의심축 신고
60	2월 2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대응 상황
61	2월 3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대응 상황
62	2월 5일	부산 강서구 육계 농가 의심축 AI 음성 판명
63	2월 6일	경기 화성시 종계 농가에서 AI 의심축 신고
64	2월 6일	전남 영암 산란계 농가에서 AI 의심축 신고
65	2월 7일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 등 지원대책
66	2월 7일	전북 정읍 소재 토종닭 농장 검사결과 AI 음성 판명
67	2월 8일	경기 화성 종계장 및 전남 영암 산란계 농장 의심환축 AI(H5N8) 고병원성으로 확진
68	2월 10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대응 상황
69	2월 11일	전남 영암 종오리 농가에서 AI 의심축 신고
70	2월 12일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행사 참석
71	2월 13일	밸런타인데이, 닭·오리고기와 함께하세요.
72	2월 13일	전북 정읍 종계 농가에서 AI 의심축 신고
73	2월 14일	AI 방역 근무자, 건강관리 적극 독려
74	2월 14일	충남 청양 산란계 농가에서 AI 의심축 신고
75	2월 16일	전북 김제 종오리 농가에서 AI 의심축 신고
76	2월 17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대응 상황
77	2월 17일	충북 음성 육용오리 농가에서 AI 의심축 신고
78	2월 19일	닭·오리고기 소비부진에 따른 농가 등 어려움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800억원 추가 지원 - 금리 1% 2년, 이후 3년 3%, 2년거치 3년 상환 -
79	2월 20일	충남 논산 종계 농가에서 AI 의심축 신고
80	2월 21일	범부처 연구역량 집중을 통한 조류인플루엔자(AI)대응 강화 - 농식품부는 '17년까지 AI 원인분석·확산·방역 등 기술개발에 167억원 투자 - 올해 농식품부 40억 원, 환경부 12억 원, 복지부 38억 원 각각 투자
81	2월 22일	경기 안성 토종닭 농가에서 AI 의심축 신고